

News

한은, 기준금리 0.75%→1% 인상…'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중앙일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 단행
이번 금리인상 배경으로 물가 상승, 가계 빚 급증,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큰 영향…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 예·적금금리 최대 0.4%p 올린다

서울파이낸스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일부 은행들, 예금금리 최대 0.4%p 인상… 기준금리 인상분을 수신금리에 반영하나 추가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 중
코픽스(COFIX)는 수신상품 자금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 주담대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

농협은행,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

이데일리

NH농협은행, 지난 8월 중단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은행들, 가계대출 급증세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 당국의 4분기 신규취급 전세대출 금액 관리대상 제외 영향도 존재

JB금융,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합인포맥스

JB금융, AI기술 접목한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하브' 구축… 그룹 계열사의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 융복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준 대비 최대 56배 빠르게 분석 업무 진행 가능… 보다 정교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계획 언급

생보업계 "헬스케어 자회사 기준 완화해달라"…정은보 "적극 검토"

연합인포맥스

정은보 금감원장, 생보업계 또한 헬스케어 부문 사업에서 관련 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 강조
이미 손보업계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 준비 중… 생보업계는 신한라이프가 본허가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 진행중… 라이나생명도 디지털 손보사 설립으로 사업 확대 움직임

카카오페이지, 18% 오르며 20만원 첫돌파

조선일보

카카오페이지, 코스피200지수 편입에 힘입어 18% 넘게 오르며 상장 후 처음으로 20만원 선 돌파… 전일 종가 21만 6,500원
코스피200에 포함되면 동 지수에 따라 운용되는 간접투자(파시브) 자금 30조~80조원 가운데 일부가 유입돼 호재로 작용

KTB證, 유진저축은행 2천억에 인수

매일경제

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인수 마무리 절차…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가진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총 2,003억원에 사들여… 유진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16.3%로 업계 선두권

SK·유안타·이베스트투자… 우리금융 증권사 누가될까

디지털타임스

완전 민영화 이룬 우리금융지주, 은행 부문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에 나설 가능성…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유력 후보
대주주가 PEF로 매각과 매입 협상 가능성에 충분… 다만 G&A사모투자전문회사의 최대주주가 LS네트웍스라 LS그룹 차원 결정 여부에 따라 매물 출회 여부 결정될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